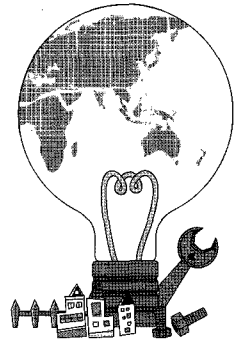


# 글로벌 유헬스센터 협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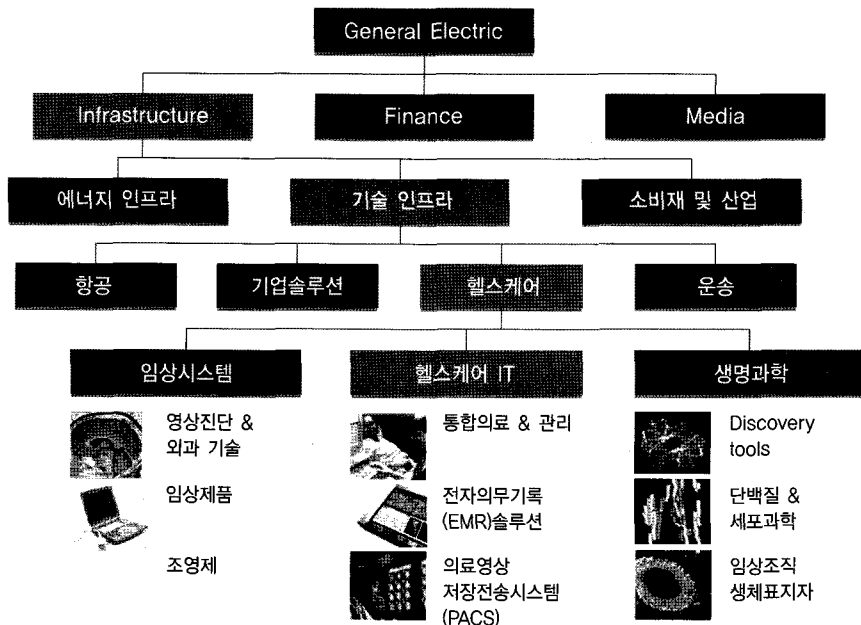


'09.12.18(금) GE 글로벌 u-Health R&D 센터 (이하 GE R&D 센터) 최종설립 협약 체결식을 지식경제부와 인천시가 개최하였다.

u-Health는 'Ubiquitous Health'의 준말로 네트워크 기반 IT기술을 의료산업에 접목하여 공간의 제약없이 언제,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미래형 건강관리 서비스 및 시스템이다.

글로벌 브랜드가치 세계 4위인 GE는 금년 5월 차세대역점사업 분야로 'GE 헬시메지네이션' 구현을 선언한 후, 이 분야에 향후 6년간 60억 불 규모를 투자할 계획으로, 아시아 처음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에 u-Health 분야 R&D 센터 건립을 결정하였다.

헬시메지네이션(healthymagination)이란 '헬스(health)'와 '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힘'



(imagination at work)'의 합성어로 헬스케어 분야에서 의료 기술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반면 비용은 절감하겠다는 GE의 새로운 사업 시책이다.

내년 1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는 GE R&D 센터는 향후 5년간 약 49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60명의 상주 연구인력이 개인맞춤형 의료정보기술의 연구 및 첨단 솔루션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.

GE R&D 센터가 들어설 인천경제자유구역 바이오연구단지(Bio Research Complex)는 IBM 등 세계적 연구기관 및 인하대병원, 송도국제병원('13년 개원예정) 등과 협력이 가능한 최적의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, 향후 GE R&D 센터는 국내병원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u-hospital化를 지원하고, 나아가 u-Health 사업 분야 해외 공동 진출도 모색할 예정이다.

이번 GE R&D센터 유치는 그간 지경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글로벌 기업 및 세계적인 연구소 유치를 통해 산·학·연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신성장동력 창출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, 향후 국내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혁신적인 의료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.

또한 선진 임상지식 습득 및 고급 전문인력 양성, 신규고용 창출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미래 신성장동력이자 국민건강을 선도할 u-Health 분야 산업발전을 위해 GE R&D 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.

GE Healthcare는 다국적 의료장비 전문회사로 GE의 4개 주요 사업분야 중 기술인프라 분야에 포함된다. 4개 분야란 Technology Infrastructure, Energy Infrastructure, GE Capital, NBC Universal 등이다. 매출규모는 전세계 175억불이고 R&D규모는 연간 10억불 이상이다. 고용은 5만여명으로 2천여명 이상 전문연구원이다. 사업분야는 생명과학, 진단기술, HIT기술 및 사업화 등이다.

u-Health란 IT기술과 원격의료기술을 접목하여 공간의 제약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이다. 그 예로 집에 설치된 생체정보 측정기기를 통해 혈압, 맥박 등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병원으로 전송되어 담당의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재택 케어 서비스 등이다. Healthcare IT란 통합의료 및 관리, 전자 의무 기록(EMR)솔루션,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(PACS) 분야 연구·개발이다.